



2020시즌 KBO리그를 대비한 신인 2차 드래프트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선은 KT 위즈의 첫 선택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풍경. 스포츠동아DB

# “포수냐, 좌완이냐” KT의 선택이 최대 관심

1순위 NC는 덕수와 좌완 정구범 '찐' 수준급 좌완투수 뽑으려던 2순위 KT 두산이 포수 강현우 탐내자 고민 거듭 KT가 강현우 선택엔 타 팀은 플랜B로

1차 지명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 각 구단 스카우트 팀은 KT 위즈의 첫 번째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2020년 KBO리그 신인 2차 지명이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드래프트 데이'다. 전체 1순위는 사실상 정해졌다.

2018시즌 최하위에 머물러 1라운드 첫 번째 지명권을 갖고 있는 NC 다이노스는 덕수와 좌완 에이스 정구범을 선택할 예정이다. 정구범은 1차 지명 선수 이상이란

평가를 받았다. 왼손 투수라는 희소성도 있다.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학년이 한 해 낮아진 점 때문에 1차 지명에서 제외됐다.

1라운드 2순위 지명권을 가진 KT의 선택은 전망이 어둡다. 올해 고교 3학년에는 뛰어난 야수 자원이 많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선호되는 포지션은 투수, 특히 고졸 투수가 인기가 높지만 올해 2차 지명에는 야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할 가능성도 높다.

KT의 지명 후보로 진흥고 김윤식, 대전고 홍민기, 성남고 이종민 등 수준급 좌완투수 3명이 함께 꼽혀왔다. 아무리 야수 유망주가 많아도 왼손 투수를 지나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그러나 1라운드 9순위 지명권을 가진 두산 베어스가 유신고 포수 강현우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KT는 포수 보강이 시급한 팀이다. 강현우는 유신고의 황금 사자기 우승을 이끈 주전 포수이자 4번타자다. 송구능력과 투수 리드 등 수비능력이 매우 뛰어나면서 타격도 훌륭하다. NC 양의지 같은 공수를 겸비한 대형 포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T가 만약 1라운드 2순위에 강현우의 이름을 부를 경우 각 팀은 플랜B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탑고 유격수 박민, 경남고 유격수 이주형, 광주일고 외야수 박시원 등도 1라운드에서 선택 될 수 있는 야수 자원이자

KT의 선택 이후에도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까지 볼펜 투수로 활용한다면 1, 2년 안에 1군 선수가 될 수 있는 좌완 투수를 선택

할 것이냐 아니면 타자를 뽑을 것이냐의 갈림길에 마주하게 된다.

매년 드래프트에서 포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포수 왕국'을 유지해온 두산은 강현우를 뽑지 못한다면 경남고 전의산, 경기고 장규빈 두 명의 포수 중 한 명을 1라운드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전의산은 타격 능력이 매우 뛰어난 포수로 롯데가 1차 지명을 고민했던 자원이자. 장규빈 역시 잠재력 면에서 굉장히 평가가 높다.

모 팀 스타우트는 "한 해 1라운드급 포수가 3명, 좌완투수가 4명 나오기가 힘든데 올해는 그렇게 됐다. 내야 자원이 풍부하다. 대부분 팀들이 투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대형 선수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야수를 뽑을 것이냐 고민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강정호

## 강정호 美 잔류 빨간불

비자 발급 안돼...밀워키와 계약 담보 음주운전 전력에 또 다시 발목 잡히나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강정호(32)의 미국 무대 잔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에도 비자 발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전력에 또 다시 발목을 잡히는 분위기다.

올 시즌 피츠버그에서 뛰던 강정호는 3일(한국시간) 방출대기 조처됐다. 입주일 간 타 구단의 영입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고 결국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렸다. 그도 그럴 것이 강정호는 올 시즌 65경기에서 타율 0.169, 10홈런, 24타점에 그쳤다. 2017~2018시즌 2년간 총 3경기 출장에 그쳤던 그에게 1년 최대 550만 달러(약 66억 원)를 투자했거나 결과는 실패였다.

그러던 중 밀워키가 2015~2016년 2년 동안 36홈런을 때려낸 강정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16일 밀워키 산하 트리플A팀 샌안토니오 미션스에서 훈련 중인 모습이 외신에 보도되며 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이유는 비자 때문이다. 'MLB트레이드루머스'는 24일, "강정호는 올해 안에 밀워키와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비자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9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이력이 모두 공개되며 '삼진아웃'에 걸렸다. 미국 비자가 쉽게 나올 리 만무했고 결국 2017년을 통째로 날렸다. 2018년에도 4월에 복귀했지만 시즌 말미에야 빅 리그 무대를 밟았을 정도로 고전했다.

결국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자업자득의 늪이 강정호를 얹어내고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2@donga.com

## PS까지 1군 동행...이동현과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는 LG

이동현 700경기 달성 후 은퇴 선언 LG, PS 확정 이후 은퇴경기도 계획 류제국은 개인적인 일로 갑자기 은퇴

돌연 은퇴를 선언한 LG 트윈스 이동현(36)은 올해 포스트시즌(PS) 무대까지 1군 선수단과 동행한다. 팀 역사의 한 줄기를 책임져온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팀의 배려이자 예우다.

구단과 팬 모두에게 감사스러운 이별이다. 이동현은 통산 700경기 출장 기록 달성



이동현

없이 마무리했다. 이동현이 22일 NC 다이노스전에서 마침내 해당 기록을 완성한 뒤 덕

아웃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다. 이때 그는 마음의 정리를 모두 마쳤다.

LG는 다른 방법으로 이동현을 붙잡았다. 곧장 그라운드를 떠나는 대신 잔여 시즌 동안 1군 선수단과 함께 지내도록 했다. 정식으로 엔트리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배들을 돌보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동료들이나 팬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넬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차 단장은 25일 "팀에 정말 많이 헌신해준 선수다. 어떻게든 예우를 해주고 싶었다. 그

래서 PS까지 함께 지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LG도 팀 레전드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 중이다. 정규시즌 4위에 올라있는 LG는 PS 진출을 확정지은 이후 이동현의 은퇴 경기, 은퇴식을 열어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차 단장은 "팬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 때 행사를 열어주고 싶다. 은퇴 이후 함께 일 할 방법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 선발 투수 류제국은 23일 갑자기 은퇴를 발표했다. 지난해 허리 수술을 받고 마운드로 돌아왔지만 올 시즌 11경기에서 승수 없이 2패만을 기록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최근 개인적 일로 구설에 오르자 전격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명 기자 seody3062@donga.com

## 공인구 혁명과 투고타저, FA 외인 선발 기준도 바뀔판

### 정재우의 오버타임

작년 홈런왕 김재환 반타작도 못해 구단들 FA전략도 전면수정 불가피 외국인도 파워피처 대신 기교파 주목

두산 베어스 김재환은 지난해 44홈런으로 KBO리그를 대표하는 최고 거포로 거듭났다. 2016년 37개, 2017년 35개에 이어 거침없이 40홈런 고지까지 정복하며 성공시대 활짝 열었다. 그러나 올해는 20홈런을 넘기기도 버거워 보인다. 반 톱막 수준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비단 김재환뿐이 아니다. 리그 전체적으로 홈런이 급감했다. 반대로 평균자책점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2014년부터 기승을 부린 '타고투저'를 완화할 목적으로 공인구의 반발력을 낮춘 영향이 '곧바로', '광범위하



두산 김재환



롯데 이대호

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홈런의 경우 경기당 지난해 2.44개에서 올해 1.43개로 현저히 줄었다.

올 시즌을 마친 뒤 30홈런 타자가 몇 명이나 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2013년 1명에 불과했던 30홈런 타자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7명→6명→7명→7명→11명의 분포를 보였다. 40개 넘는 홈런을 친 타자도 2014년부터는 2명→3명→2명→1명→5명에 이르렀다. 올해는 40홈런은 고사하고 30홈런 타자도 현재로서는 두세 명에 그칠 듯

하다.

홈런의 시대, 통볼의 시대에 편승해 최근 수년간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급팽창했다. 30홈런·100타점을 올리는 타자가 각광 받았다. 타고투저를 반영해 거포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됐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최고액 FA 계약을 살펴보면 투수로는 2015년 KIA 타이거즈와 90억 원에 사인한 윤석민이 유일하다.

그 뒤로는 모두 타자다. 2016년에는 박석민과 NC 다이노스의 96억 원, 2017년에는 이대호와 롯데 자이언츠의 150억 원, 2018년에는 김현수와 LG 트윈스의 115억 원, 2019년에는 양의지와 NC의 125억 원이 최고였다. 최고액은 농축했지만 2017년 최형우는 KIA와 100억 원, 2019년 최정은 SK 와이번스와 106억 원에 계약해 이대호, 김현수, 양의지처럼 100억 원대 갑부 대열에 합류했다.

'투고타저' 양상이 뚜렷한 올 시즌을 마

치고 나면 FA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더욱이 FA 거포에 대한 논란 속에 2019년 시장은 이미 크게 후퇴했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700억 원대로 활황세를 탔던 FA 시장이 2018년 631억5000만 원(계약자 19명)으로 주춤한 데 이어 2019년에는 490억 원(계약자 14명)까지 몰라났다. 30홈런·100타점 타자가 즐비하던 시대가 저문 만큼 구단들은 이제 FA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FA 전략과 더불어 외국인투수 수급전략도 새로 수립해야 한다. 거포들을 제압하기 위해 파워피처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정교한 제구력을 갖춘 투수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장 감독들은 기교파 투수(finesse pitcher)에도 주목한다. 올해를 비롯해 해마다 외국인투수 잔혹사에 시달려온 삼성 라이온즈 김한수 감독 역시 이에 동의하며 "투고타저 시대에 걸맞게 이제 외국인투수 스카우트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구 혁명'에서 비롯된 투고타저가 올 겨울 외국인선수와 FA 계약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jace@donga.com